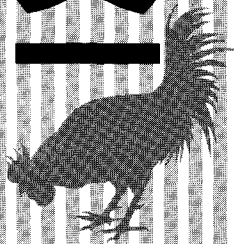


해외양계뉴스



미국

가금육 소비량 49.3kg, 증가되는 닭고기 수출

미농무성(USDA)에서 최종 집계한 2000년도 미국의 닭고기 수출현황을 보면 1999년에 비해 13%증가한 252만톤으로 집계되었으며, 최대 수출국은 홍콩으로 63만톤으로 전체수출의 2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고, 수출증가율이 높은 나라는 싱가포르로 14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도 가금육 총 생산량은 1,600만톤으로 2.3%가 증가하였으며, 가금육 소비량은 1인당 49.3kg으로 유럽연합의 평균 21.3kg보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미국의 닭고기 수출 현황(1,000톤)

구 분	1999년	2000년	증가율(±%)	점유율(%)
홍콩	556.6	633.6	+13.8	25.2
러시아	314.7	163.5	+94.9	24.4
멕시코	135.5	165.1	+21.9	6.6
라트비아	313.4	139.8	-55.4	5.6
일본	99.1	104.6	+5.6	4.2
캐나다	66.1	76.6	+15.8	3.1
싱가포르	10.5	25.4	+141.1	0.9
기타	725.9	757.8	+4.4	30
계	2,221.8	2,516.4	+13.3	100

태국

액란공장 가동으로 수입액란 대처 효과 기대

태국에서 처음으로 액란공장을 설비하여, 가동함으로써 올해의 경우 유럽에서 수입되고 있는 액란 600~700톤에 대해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은 지난해만 해도 696톤의 액란을 수입한 바 있으며 이 물량은 1999년 292톤에 비해 2.4배나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말 완공된 Charone Pokphand Food사의 생산용량은 연간 3,000톤으로 계란 6,000만개를 소비할 수 있는 시설로 과잉생산되는 계란의 처리와 점점 증가되는 액란수입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이 회사는 많은 식품회사들이 계란을 이용한 액란 사용이 늘면서 0℃~4℃에서 10일 보관, -20℃에서 6개월

을 보관할 수 있는 두가지 종류의 액란을 중점적으로 생산, 공급하면서 수요처를 늘려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WP)

필리핀

중국 가금육 수입 전면 금지 조치

홍콩의 조류독감 바이러스(H5N1)가 발생하자 필리핀 정부는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가금육의 수입을 즉각 중지하는 한편 수입된 모든 가금육을 수거해 즉각 폐기처분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번에 내려진 금수조치 항목에는 모든 가금육은 물론 병아리, 종란, 동물용 사료를 이용해 생산되는 각종 가금 생산물이 모두 포함되었다. 또한 홍콩을 경유해 입국하는 여행객에 대해 철저한 방역을 지시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이 아닌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가금육에 대해서도 검역을 철저히 해줄 것을 엄격히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양계산업 빠른 회복세

인도네시아가 지난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불황이 이어지면서 침체일로를 걸던 양계산업이 금년들면서 IMF이전인 1996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인당 가금육 소비는 1998년에 1.73kg, 1999년에 2.0kg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2.3~2.5kg으로 증가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경

제위기 이전인 1996년 3.7kg에 근접한 3.0kg이 될것으로 예상되면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닭고기 생산량도 2000년도에 1,500~1,600만수로 1996년의 80%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위기때 사료원료 가격 상승 등으로 사료가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않아 1996년 650만톤에 달하던 사료 공급이 260만톤으로 감소하면서 많은 농가들이 업을 포기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했으나 금년도 말에 650만톤의 수준을 되찾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금년 이후에는 정상수준을 되찾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인도네시아는 외국으로부터 사료원료 50~60% 수입하고 있다.(PI)

일본

지난해 정책평가 결과 계란은 『A』, 육계는 『B』

지난해 일본 농무성이 식료, 농업, 농촌기본 계획 분야로 나누어 79개의 분야를 가지고 정책평가를 한 결과 계란은 A등급, 육계는 B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준은 달성상황에 따라 90%이상이면 A등급, 50%이상-90%이하면 B등급, 50% 미만이면 C등급으로 계란의 경우는 생산, 유통, 시설, 소비대책 중 시설에서만 B등급을 받고 나머지는 모두 A등급을 맞아 전체 성적에서 A등급을 받은 반면 닭고기는 소비에서만 A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와 돼지는 생산, 소비부문에서 C와 B 등을 받아 정책이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아오고 있다.(鷄鳴新聞)